

<번역 논문>

성경 번역가를 위한 생태 지침서에 관하여

스티븐 패트모아(Stephen W. Pattemore)*

송영목 번역**

최첨단 번역

쌍둥이 엔진 프로펠러를 장착한 비행기가 파푸아뉴기니 서부 지방의 내륙 항구인 키언가(Kiunga)를 향하여 하강할 때, 필자는 창문 밖에 펼쳐진 장면 때문에 겁에 질렸다. 필자가 지난번 방문했을 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광활한 정글은 이제 바깥으로 뻗은 복잡한 그물과 같은 비포장도로들로 덮여 있었고, 벌목 도로는 지구상 가장 큰 저지대 습지 산림 중 하나가 사라질 것을 예고했다. 필자는 두 가지 성경 번역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려고 여행했는데, 그때 정글 한가운데 있는 마을들로부터 와서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이 필자에게 들려준 이야기도 똑같이 충격적이었다. 외지인들은 넓은 산림 지역을 완전히 벌목했는데, 단지 한 종류의 나무 곧 ‘침향나무’를 벌목하여 얻기 위해서였다.¹⁾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관련하여 나타난 결과

* University of Otago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뉴질랜드성서공회 소속.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 컨설턴트. spattemore@biblesocieties.org. Stephen W. Pattemore, “Towards an Ecological Handbook for Bible Translators”, *The Bible Translator* 70:3 (2019), 326-342.

** Rand Afrikaans Universit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 ymsongrau@hanmail.net.

1) ‘침향나무’ 혹은 ‘침향목’은 침향 속(genus *aquilaria*) 나무의 속이 일종의 곰팡이에 감염되었을 때 형성되는 짙은 수지성 목재이다. 이 수지는 향과 향수 제조에 있어 매우 값어치가 있다. 모든 침향 종들(species)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종에 대한 국제무역협약(CITES)의 부록 II(잠재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cites.org/eng/app/appendices.php>). 대체로 야생 침향목 100그루 중에서 7그루만 곰팡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기에, 이러한 방식의 벌목이 미치는 영향은 침향목의

는 그들의 식물과 동물 자원들의 보고가 황폐해진 것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밀른 만(Milne Bay)에서 열린 번역가 훈련을 위한 다른 여행에서, 필자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남부처럼 광활한 면적에 걸친 야자유의 단종 재배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또는 자신의 언어로 성경 번역을 거의 다 마쳐가는 고지대의 유나(Yuna) 공동체의 상황을 생각해 보라. 멀러(Muller) 산맥의 두 고지대 계곡을 따라 거주하는 그들 대부분은 자작 농업인들이며 일부는 사냥꾼들인데, 2009년 아 로차(A Rocha)와 콘서베이션 인터내셔널(Conservation International)은 거기서 “새로운 개미, 거미, 개구리 그리고 여치에게서 ‘놀라운 다양성’을 발견했다.” 또한 그곳은 막대한 외국(이익) 자본이 투입된 액체 천연가스 프로젝트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있는 장소와 가깝다. 이런 고지대 주민들의 경제와 사회는 학교 교사나 보건소 직원이 버는 것보다 건설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시스템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 외국 기업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정치인들의 주머니로 막대한 이윤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파푸아뉴기니는 개발과 보존 사이의 충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과 단기적 이윤 창출을 위해 천연자원을 착취하는 것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는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사례이다. 그리고 이러한 난제가 벌어지는 한 가운데에서 많은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생태 해석학 운동은 대체로 여전히 선진국의 현상이다. 필자는 이 운동이 전 세계의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다수 세계 학자들의 연구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매우 자연스럽게 선진국의 학문적 연구의 지적 지평 안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성경을 그것의 원어로서 주해하고 해석하며, 거기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며, 필요하다면 본문 자체를 거슬러 읽기도 한다. 우리는 학자로서 본문과 우리 자신의 삶 사이에 거리를 두어 본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우리가 성경 번역을 참고할 때, 주요 언어 번역들을 불가피하게 인용한다. 우리는 그런 번역들이 대개 정확하거나 적절하며, 우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

손실이라기보다는, 이 나무들에 접근하기 위해 밀림을 모두 벌채한 것 때문에 초래된 완전한 파괴와 훼손이다(<https://en.wikipedia.org/wiki/Agarwood>).

- 2) 참조, Stephen J. Richards and Banak G. Gamui, eds., *Rapid Biological Assessments of the Nakanai Mountains and the Upper Strickland Basin: Surveying the Biodiversity of Papua New Guinea's Sublime Karst Environments*, RAP Bulletin of Biological Assessment 60 (Arlington: Conservation International, 2011) Accessed from https://www.conservation.org/NewsRoom/Pressreleases/Pages/New_Species_Papua_New_Guinea_Muller_Nakanai.aspx.

람들이 사용하는 주요 번역들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언어와 성경의 ‘신성한 혼인’은³⁾ 오래전에 일어났으며, 예를 들어,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카바쉬(kabash)와 라다(radah) 혹은 창세기 2장의 아바드(‘abad)와 샤마르(shamar)의 공식적인 번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기회가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번역으로 채택된 단어들보다 더 거칠고 딱딱하거나 아니면 더 부드럽고 지구 친화적으로 번역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어졌을 것이다!)

이런 지적 세계는 필자가 서론에서 설명한 그런 상황 곧 원주민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자신들의 첫 번째 성경 번역을 시도하는 상황과 매우 다르다. 필자가 이전에 논증한 것처럼,⁴⁾ 약탈적 개발과 지속 가능한 개발 간의 전쟁이 뜨거운 생태적 최전선에서 많은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이점 혹은 제약으로 여겨질 수 있는 두 요인이 있다. 첫째, 이 지역들은 번역의 전통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곳들이다. 사실 그런 곳들은 매우 창조적인 단계에 있는데, 16세기에 영어가 발전했던 그런 단계를 지나간다.⁵⁾ 둘째, 그런 곳들에서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간주된다. 즉 성경 번역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성경 번역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지침서로서 최종 권위를 지닌 책으로 읽혀질 것을 의미한다.⁶⁾ 필자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번역 과정을 조작하여 생태 보존이라는 우리의 목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지 않는다. 그리고 필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정결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농부들로서 그들의 환경에 잘 맞추어 살았다거나, 바울이 로마제국의 삼림 파괴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본문에 시대착오적인 과학이라는 짐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는 형성되고 있는 이런 전통들 안에, 주요 언어 번역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자유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최선의 결과물은 일종의 스티

3) Philip Goodwin, *Translating the English Bible: From Relevance to Deconstruction* (Cambridge: James Clarke, 2013).

4) Stephen W. Pattemore, “Green Bibles, Justice and Translation”, *The Bible Translator* 61:4 (2010), 217-226.

5) Philip Goodwin, *Translating the English Bible: From Relevance to Deconstruction*.

6) 비록 성경을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그들의 몇몇 멘토 선교사들이 물려준 경직된 문자주의와 종말론적 구도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지 않다. 여하튼 생태주의에 대한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태도에 관한 마이어(Harry O. Maier)의 폭넓은 미묘한 차이가 나는 연구는 그 모습이 획일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Harry O. Maier, “Green Millennialism: American Evangelicals, Environmentalism and the Book of Revelation”, David G. Horrell, et. al., eds., *Ecological Hermeneutics: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London: T&T Clark, 2010), 246-265.

디 바이블인데, 우리 시대의 생태 위기의 정황을 깊이 생각한 조심스러운 번역, 독자가 본문의 원래 정황을 이해하도록 돕는 부가적 해설, 그리고 참여와 적용을 위한 제안이 결합된 것이다.

오그덴(Graham Ogden)⁷⁾은 번역에 있어 가장 유효한 형식은 스티디 바이블이라고 제안해 왔다. 필자가 수행한 관련성 이론에 관한 연구는 필자를 동일한 방향으로 이끌었다.⁸⁾ 우리는 본문에다가 학자들이 찾아낸 모든 배경 정보나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전달하기 원하는 수사학적 목적과 같은 짐을 과도히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적절한 해설(또는 디지털 미디어를 포함하여 다른 본문병행 자료를 통해)으로써 적합하게 언급될 수 있다.

하나의 생태 지침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번역가가 성경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도록 『성서 속의 동물들』⁹⁾과 『성서 속의 식물들』¹⁰⁾ 그리고 『성서 속의 물건들』¹¹⁾과 같은 다수의 자료를 출판했다. 이런 자료들은 주제 혹은 의미론적 사전류 스타일인데, 최근에 UBS/SIL의 번역 소프트웨어인 파라텍스트 (<https://pt8.paratext.org/>)의 태그된 원어 본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2019년) 배포된 파라텍스트의 최신 버전에는 태그된 주요 언어 성경 번역 본문을 통해서도 그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형식의 생태 지침서를 구상해 볼 수 있지만, 다수의 생태적 관심은 개별 단어들보다 구절, 문장 그리고 단락 전체와 연결된다. 따라서 필자가 현재 작업 중인 제안은 번역가를 위한 ‘지구 지침서’ 시리즈를 위한 것인데, 간략한 주석 형식으로, 성경 본문 어디에 보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이 등장하는지, 지구 공동체의 목소리가 분별될 필요가 있는 본문의 위치를 번역가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

7) Graham Ogden, “A Case Study for Study Bibles: The Book of Haggai”, *The Bible Translator* 69:2 (2018), 176-183.

8) 참조, Stephen W. Pattemore, “Relevance Theory, Intertextuality, and the Book of Revelation”, P. Noss, ed., *Current Trends in Scripture Translation*, UBS Bulletin 194/195 (Reading: UBS, 2002), 57. 관련성 이론의 틀에서 스티디 바이블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Harriet Hill, “Relevant Study Bibles”, *The Bible Translator* 61:4 (2010), 191-207을 보라.

9) Edward R. Hope,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Living Things in the Bible* (New York: UBS, 2005).

10) Robert Koops, *Each according to Its Kind: Plants and Trees in the Bible* (New York: UBS, 2012).

11) Ray Pritz, *The Works of Their Hands: Man-Made Things in the Bible* (New York: UBS, 2009).

리고 나서 번역 제안들과 연구를 위한 해설의 모델들을 제공하는데, 번역 팀이 ‘철두철미하게 생태적인’ 성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¹²⁾

몇 가지 기본 원칙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증가하는) 생태 핫스팟에서 진행 중인 대부분의 성경 번역은 원주민 언어를 구사하는 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번역팀의 교육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자원은 상당히 다양하다. 그들 대부분은 컴퓨터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다. 일부 번역가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자신의 언어로 된 첫 번째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곳에서 작업하고 있다. 다른 번역가들은 기존 전통을 개정하거나 재번역 중이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생태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몇 가지 안내 원칙을 세울 수 있다:

- 해설은 독자가 본문을 역행하여 읽도록 자극하지 말아야 하며, 본문과 함께 작동하여 독자가 새로운 사고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본문을 해석하는 인지 환경을 확장해야 한다.
- 따라서 해설의 목표는 독자가 현재의 생태 딜레마와 미래의 지구와 관련된 소망에 대해 숙고하도록 그들을 ‘지구로 데리고 내려오는’ 것이다.
- 해설은 번역가들이 다른 시간과 장소로부터 나오는 성경의 메시지를 틀 지우고 토대 위에 세우도록, 번역가들 자신의 문화적 위치를 생태적으로 이해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해설은 적어도 두 가지 방향에서 치명적인 시대착오적 오류를 피해야 한다. 해설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 위기나 원인을 본문이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해설은 지나가고 있는 일시적인 최근 (특정 날씨 사건과 같은) 주제들에 묶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해설은 독자의 주의를 세상의 더 큰 현실로 돌려야 한다.
- 번역가를 위한 해설은 번역 방향을 위하여 구체적인 제안을 제공해야 한다.

12) Stephen W. Pattemore, “Green Bibles, Justice and Translation”, 217-226.

- 독자들을 위한 모델 해설은 그들의 정황 즉 그들이 직면하는 착취적인 권력 구조에 적합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고, 저항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을 위한 해설: 하나의 시작

필자에게 요한계시록은 성경 본문에 관한 생태학적 사고 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었다. 생태적 관점은 필자의 박사 논문¹³⁾에 언급이 안 되었지만, 그 후 몇 년 만에 뉴질랜드 프리미어 보존 비정부기구에서 근무하던 필자의 아들은 환경과 그리스도교 사상을 통합한 어떤 콘퍼런스를 구상하도록 도왔고, 필자에게 ‘모든 것이 불탈 것’이라는 관점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요한계시록 논문을 작성하도록 도전했다.¹⁴⁾ 그래서 필자는 요한계시록의 맥락 안에서 몇몇 해설과 생각을 정리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유사한 지침서들처럼, 필자는 서론에서 배경적 내용을 다룰 것이다. 이 장은 묵시문학이 자연 세계로부터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로마제국의 착취적이며 지배적인 정치 주도권의 영역 안에 있던 요한의 물리적이며 시간적인 위치에 대한 배경 설명도 제공해야 한다.¹⁵⁾

물론 요한계시록은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훨씬 더 큰 우주의 한 부분으로 간주한다. 해, 달, 별들 그리고 하늘은 예언적 환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일차 독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독자들에게 가장 유의미할 것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교인의 성품이다. 그리고 이런 새 독자들은 일차 독자와 중요한 다른 무언가를 공유한다. 두 독자는 로마 혹은 신 자유 자본주의라는 제국의 권력에 종속된다. 의미심장하게도, 세상을 파괴하는 로마제국의 정치적 패권이라는 요한계시록의 맥락과 저항을 요청하는 요한계시록 자체를 식별하는 것이야말로, 로싱

13) Stephen W. Pattemore, *The People of God in the Apocalypse: Discourse, Structure and Exegesis*, SNTS Monograph Series 12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4) 마이어(Harry O. Maier, “There’s a New World Coming! Reading the Apocalypse in the Shadow of the Canadian Rockies”, Norman C. Habel and Vicky Balabanski, eds., *The Earth Story in the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166-179)와 마찬가지로, 자연계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필자가 청년기에 배운 세대주의적 이해의 틀로부터 본인을 오래전에 자유롭게 만들었다. 학문적 성찰이 뒤따랐고, 이 논문의 시작 부분에 있는 자서전적 해설은 이미 지구의 목소리에 민감해진 양심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조, Stephen W. Pattemore, “How Green is Your Bible?”, *The Bible Translator* 58:2 (2007), 75-85.

15) Micah D. Kiel, *Apocalyptic Ecology: The Book of Revelation, the Earth and the Future*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7)는 이 점에 있어 매우 귀한 참고 자료이다.

(Barbara Rossing)¹⁶)으로 하여금 ‘우아이 텐 겐’(οὐαί τῆν γῆν, 12:12 및 관련 구절들)을 저주(“땅에게 화가 있다”)가 아니라 비탄(“아 지구여”)으로 번역하도록 격려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그때도 ‘그리스도교인의 신실한 삶’은 개인의 신실한 행동과 제국의 패권에 저항하는 집단적 행동을 요청한다. 이 두 행동은 요한계시록을 지구 친화적 관점에서 제시할 때 나타나야 한다.

필자는 해설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본문의 위치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의 세 단락을 선택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마지막 장들(계 21-22장)은 이미 상당한 주목을 받아왔지만, 종말론에 대한 건설적 관점을 위해 매우 중요한 단락이다. 요한계시록의 중간 단락인 요한계시록 15-16장에 따르면, 지구(그리고 더 광활한 우주)는 일련의 파괴적 사건을 겪는데, 그것들은 종종 불특정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행위로 간주된다. 여기서 필자의 목적은 독자들이 잠시 멈추어 어떻게 그 사건들이 더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련되는지 생각하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단지 명백한 생태 구절에만 초점을 둔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기껏 번두리에 해당하는 무언가에 관해 많은 논쟁을 일으켜서, 예외주의라는 비판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저자와 수신자들의 실제 세계에 우리가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1장에 관한 몇 가지 고려도 포함하기 원한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많은 구절들도 이와 비슷한 대우를 받기를 요청하는데, 그중에서도 예배 환상의 찬송들 안에 나타난 피조물과 지구에 대한 언급이 그러하다(예, 4:11; 5:9-11; 11:17-18). 다음 내용은 단지 하나의 샘플이며 추가 연구를 요청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을 구성하는 해설은 완성되어가는 단계에 해당하므로 혼성적 특성을 가진다. 대체로 그런 내용은 번역가를 위한 해설로 구상되지만, 때로는 그 안에 성경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해설도 담겨있다. 그런 내용은 학문적 자료를 비중 있게 참고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주장을 지지하거나 배경 사고를 설명하기 위해 몇몇 참고 자료가 최근에 추가되었다. 이런 해설들은 프로젝트 전체에 관해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번역가들에게 최선의 방식으로 전달될 방법에 대해 토론을 불러일으키려는 소망을 담아 제시된다.

16) Barbara Rossing, “Alas for Earth! Lament and Resistance in Revelation 12”, Norman C. Habel and Vicky Balabanski, eds., *The Earth Story in the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180-192; Barbara Rossing, “Woe, Horror, Disaster, or Lament? Revisiting Translations of ouai in Revelation 8.13”, *The Bible Translator* 70:3 (2019), 297-305.

해설 샘플들

요한계시록 1장

1:5 “...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 예수 그리스도 ...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¹⁷⁾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대기권 바깥의 먼 곳으로부터 일하시지 않고, 우리 세계의 물리적 매트릭스의 한 부분이 되셨다는 확언이다.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지신 인간으로서, 인류의 진화 역사(‘피’)를 공유하시고 우리 모두가 향하고 있는 쓰라린 종말을 경험하셨다. 그러나 복음서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으로 돌아오셨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가 없는 영들을 위한 어떤 유령 같은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신체적 성분이 갱신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기초이다. 골로새서 1:18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는 동일한 표현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더 이른 표현인 ‘만물 가운데 으뜸’이 뒤따른다.¹⁸⁾ 우리를 위한 죽으심은 출생과 정확히 반대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최종적 상태를 정복하셨고 원래 창조와 새 창조 둘 다 이끄신다.

1:5-6 “땅의 임금들의 머리 ...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인간 사회에는 항상 권력 구조가 있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사회는 폭력적 정복으로 권력을 획득한 사람 혹은 그런 방식으로 정복하여 권력을 획득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승계한 왕들에 의해 지배되었다. 왕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사회 권력을 이용했으며, 그 결과 많은 일반 백성은 굴종과 빈곤에 빠졌다. 왕들은 자주 천연자원을 과도히 사용했다. 하나님께서 인류(그리고 연관된 그리스도교인의 지위)와 맺으신 관계를 묘사하기 위하여 성경이 왕권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저자가 속한 사회적 맥락 안의 권위에 대한 저자의 이해를 반영한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왕권에 대해 경쟁하는 이해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왕들처럼 착취하시며 억압하시는 방식으로 통치하신다는 필연적인 함의와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똑같이 처신해야 한다는 파

17) [역자주] 저자는 영어 성경 NRSV를 인용하였으나 본 번역논문에서는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인용하였다.

18) D. E. Aune, *Revelation 1-5*, Word Biblical Commentary 52a (Dallas: Word, 1997), 38. 요 1:1의 영향과 이 구절의 배경인 창 1:1과 잠 8:22-31도 염두에 두라.

생된 함의는 없다. 번역은 폭력과 권력에 초점을 두는 왕과 왕국을 위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마땅히 피해야 한다. 오히려 번역은 존엄성과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는 현재의 대응 용어를 찾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리더십의 개념을 비평적으로 검토하고 폭력이 아니라 존엄성을 강조하는 용어들을 식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일차 독자는 정치 권력을 거의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아웃사이더로 구성되었다. 반대로, 왕들과 제사장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다. 요한은 자신의 송영에서 세상의 체제가 뒤바뀌었다고 밝힌다. 하나님의 백성이 왕들과 제사장들이다(노예에서 강력한 제국으로 출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백성들처럼; 출 19:6).¹⁹⁾

1:6 “영광과 능력” 이 둘은 왕의 속성이다. 여기서 능력은 *κράτος*(크라토스)인데, ‘힘’, ‘권력’, 혹은 ‘능력’을 의미한다. 비록 이것이 사람을 억압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사람을 압제에서 해방하고 착취에 직면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과 같은 선한 일을 위한 힘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성경의 첫 장(창 1장)은 하나님께서 첫 사람들에게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주신다고 묘사한다(창 1:26, 28). 그리스어와 다른 언어인 히브리어의 해당 단어는 ‘다스리다’를 의미한다. 비록 그 단어는 거친 어조를 가지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존재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므로, 하나님처럼 인간의 다스림은 생명을 번성케 하고 보호하며 유지해야 한다(창 2:15 참조).

1:9 “빛모라 하는 섬” 성경에서 종종 특별 계시는 사람이 광야에 머물 때 주어진다. 장소가 언급되는 이 경우는 한 섬이다. (광야처럼) 섬들은 자연의 생물과 무생물체가 독특하게 혼합되어 있는 지구에서 매우 특별한 곳이다. 섬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지식을 제공하는 장소이며, 특별한 보호를 받아 마땅하다. 이 경우, 빛모 섬은 오늘날 그리스에 속하지만 터키 연안에 있다. 그 섬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일곱 교회가 위치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멀지 않다. 정치 권력가들은 그 섬을 유배와 처벌의 장소로 사용했음직하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 19세기에 ‘죄수들’이 호주로 이송되거나, 20세기에 마누스(Manus) 섬과 나우루(Nauru) 섬에 난민들을 투옥한 것을 생각해 보라. 반면에, 요한은 정부 당국자들을 피해 스스로 빛모 섬으로 피신했을 수 있다.²⁰⁾ 섬들은 보호의 장소와 축하를 위한 장소일 수 있다.

19) D. E. Aune, *Revelation 1-5*, 47.

일곱 교회와 관련하여 밧모 섬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그 섬의 문학적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기에 연구 해설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1:11 “에베소 … 라오디게아” 밧모 섬처럼, 이 도시들은 사람이 거주한 곳들이다. 각 도시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자리 잡은 (지리, 기후, 혹은 무역에 있어) 고유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특징들 가운데 몇몇은 일곱 교회에게 준 메시지에서 중요하다.²¹⁾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사는 장소도 독특한데, 장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기여하는 중요성이 각각 있다.

1:12 “일곱 금 촛대” 금은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금속이다. 그것이 귀한 것은 희귀하고 아름다운 노란색 때문이다. 금은 닦으면 윤이 나지만, 공기와 섞이더라도 쉽게 녹이 슬거나 변색되지 않는다. 금은 부드러워 많은 형태로 쉽게 주조된다. 금 촛대는 (왕과 같은) 고위직 사람들을 위해 혹은 (성소와 성전 예배와 같은) 특별한 제의에서 빛을 밝혔다.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그리스도교인 공동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금은 그리스도교인 공동체들이 하나님에게 매우 값진 존재임을 의미할 수 있다.

금은 로마제국이 채굴한 많은 광물 중 하나이다. 이런 채광은 자주 그 일에 종사한 일반인들에게 위협하고 품위를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환경도 심하게 훼손했다.²²⁾ 오늘날도 금과 같은 귀한 광물을 계속 탐사하고 있다. 1세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장소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일반 노동자들을 비인간화하며 위협에 빠뜨리면서 이미 부유한 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

20) Micah D. Kiel, *Apocalyptic Ecology*, 6. 독자를 염두에 두고, 필자는 밧모 섬의 장소가 문학적 허구이거나 내러티브 장치라는 가능성을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Greg Carey, *Elusive Apocalypse: Reading Authority in the Revelation to John*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9), 128, 각주 102의 도움이 되는 요약도 참고하라.

21) 램지[W. M. Ramsay]와 헤머[C. J. Hemer]를 따라 일부 주석가들은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 나타난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계 2-3장을 주해하지만, (프리장[P. Prigent]을 따르는) 다른 주석가들은 문학적 연결성을 강조한다. 생태학에 있어 장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역 언급들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런 언급들이 과장되어서는 안 되며, 상호본문적 연결점에 적절히 주목해야 한다. 참조, W. M. Ramsay, *The Letters to the Seven Churches of Asia and Their Place in the Plan of the Apocalypse* (London: Hodder & Stoughton, 1904; reprin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C. J. Hemer, *The Letters to the Seven Churches of Asia in their Local Setting*, JSNT Supplement 11 (Sheffield: JSOT Press, 1986); Prigent, P., “L’Hérésie asiatic et l’Église confessante: De l’Apocalypse à Ignace”, *Vigiliae Christianae* 31 (1977), 1-22; P. Prigent, , *L’Apocalypse de Saint Jean*, 2nd corrected edition, *Commentaire du Nouveau Testament* 14 (Geneva: Labor et Fides, 1988).

22) Micah D. Kiel, *Apocalyptic Ecology*, 65-66.

든다.

번역하려는 언어에 ‘금’이 없는 경우, 몇 가지 번역의 가능성이 있다. (종종 시도되듯이, 예를 들어, ‘골로[golo]’로) 음역하거나, ‘값비싼 노란 금속’과 같이 설명하는 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연구 해설을 통하여, 금의 중요성과 채굴에 동반되는 영향 그리고 금이 드러내는 부의 불평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등불은 기름을 사용하여 태워 빛을 발한 종류였을 것이다. 이 기름은 자주 (올리브와 같이) 재생 가능한 식물 재료에서 추출한 것이었다. 인류는 지난 200여 년 동안, 빛과 열을 위한 연료와 개발을 위한 에너지 자원으로 재생 불가능한 석유를 사용해 왔는데, 그것은 매우 오래전에 땅속 깊은 곳의 생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개발의 많은 부분은 인간이 더 편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도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끔찍한 결과도 초래했다. (등불과 자동차와 발전소와 비행기에서) 기름이 연소되어 나온 가스는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 왔으며,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생명체를 위협할 우려스러운 속도로 진행 중이다. 만약 우리가 기름을 금처럼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책임성 있게 사용할 것이다.

1:13-16 요한이 본 장엄한 인물에 대한 묘사는 자연(양털, 눈, 해, 물, 별)과 자연 세계를 이용해 인간이 만든 결과물(옷, 띠, 동, 주석, 칼)이 결합한 것이다. 품위와 미와 힘을 상징하는 우리의 모든 문화와 사회는 자연 세계를 기반으로 하며 자연 세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자연 세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이용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종적을 감추도록 만들게 된다.

1:16 “별 … 해” 해는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다. 해는 바로 힘을 상징하며 무한한 권세의 상징과 같다(태양 에너지는 실제로 약 50억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은 해가 가장 가까운 행성이며, 모든 별이 실제로 해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별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 해보다 약하게 보인다. 그러나 별은 빛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종종 지구상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특별한 지식의 원천으로 간주되어 왔다. 번역가들은 해, 달, 별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세계관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언급된 견해와 연결되거나 대조되는 해설을 제공해야 한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묘사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선 자연계의 이미지를 활용한

다. 오늘날도 우리가 행성들을 더 많이 이해하더라도, 그런 행성들의 아름다움과 힘 때문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1:18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은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종말이다. 고대 세계에서 죽은 사람은 종종 히브리어로 스올 그리고 그리스어로 하데스라 불리는 지하의 별도의 세계에서 환영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여겨졌다. 열쇠는 귀중품을 담은 상자의 자물쇠를 닫고 열거나, 방이나 감옥을 포함하여 건물을 잠그는 기기이다. 로마 황제는 땅, 바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전체 세계 위에 최고의 힘을 주장했다.²³⁾ 요한의 우주관은 다르다. 예수님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계신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지상적 한계를 공유하셨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의 세계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 따라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은, 그분이 이 감옥으로부터 모든 죽을 것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락라워이족(Urak Lawoi)은 ‘나는 영혼들의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사는 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번역한다.

요한계시록 15-16장

15:1 “하늘”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지 않으므로 해설을 달 경우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어딘가 (요한계시록 배후에 많은 사고 세계를 형성하는) 히브리어와 (요한계시록의 전경을 형성하는) 그리스어 모두에서 동일한 단어가 언급하는 바, 새가 날고, 바람이 불며, 별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늘을 독자가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요한은 지구와 지구 환경 안에 발생하는 일들과 연관 있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여러 환상을 본다. 이 환상들은 자연 현상처럼 보이거나, 하나님의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 세상으로부터 먼 거리에 떨어져 계시지 않다.]

“일곱 재앙” 영어 단어 ‘plague’(재앙)의 기원은 여기에 사용된 그리스어 ‘플레게(πληγή)’이다. 이 단어는 영어로 끔찍하거나 광범위한 질병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그리스어 단어는 막대기나 다른 무기로 가격하고 때리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 단어는 그런 타격과 또 다른 타격으로 인한 부상, 상

23) Ibid., 64.

처, 혹은 상함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파괴적인 불행도 가리킨다. 이어지는 여러 장에서 묘사되는, 땅을 내리치는 큰 불행들은 생물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같다. 우리가 지구 생명체의 연결망과 그 연결망을 지탱하는 무생물의 체계를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누가 혹은 무엇이 이런 불행을 초래했는가?

“하나님의 진노” 그리스어 명사 *θυμός*(쉴모스)는 종종 열정 혹은 열정적인 감정이 극에 달함을 의미한다. 큰 음녀의 성적 부도덕과 연관된 요한계시록 14:8과 18:3은 이런 의미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매우 빈번하게 이 단어는 격분과 같은 의미이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절반 이상(18회 중 10회)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데, 대부분 요한계시록의 이 단락과 관련이 있다. 요한계시록 밖에서 이 단어는 종종 자신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몹시 화난 폭도의 분노를 가리키거나, 그리스도교인이 피해야 하는 매우 부정적인 인간의 감정을 의미한다. 이 단어와 밀접한 단어는 더 흔히 사용되는 명사 ‘오르게’(ὄργη,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어에서 ‘난교’[orgy]가 파생한다)이다. 이것은 인간이 느끼는 분한 감정이다(막 3:5에서 불의와 완악함을 직면하신 예수님에게 적용된다). 신약 전반에 걸쳐 이 단어는 매우 자주 죄와 악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특정하기보다, 종종 ‘그 진노’ 혹은 ‘진노’일 뿐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피해야 한다고 말해진 그런 부정적 감정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힐 때 발끈 화를 내고 절제하지 못하는 폭군이신가? 이것은 사려 깊은 그리스도교인에게 중요한 윤리적 딜레마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단서가 있다. 첫째,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될 경우, 진노 혹은 분노는 항상 죄, 불의 그리고 악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과 인간에게 발생하는 잘못을 하나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시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둘째, 우리는 진노가 비인격체로 작용하는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진노는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세상의 구조 안에 자리 잡은 교정 기제와 같다. 죄, 이기심, 그리고 불의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결과를 초래한다.

요한계시록의 이 단락에서, 지구를 타격하는 일곱 가지 큰 불행은 최악된 행성에 대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복수라는 행동으로 자주 여겨진다. 하지만 동일하게 그것들은 인간의 죄, 이기심, 그리고 불의가 초래하는 파괴적인 결과로 인해, 지구 안에 본래 내재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 오

늘날 우리는 폭풍, 홍수, 가뭄, 기근과 같은 많은 위협적인 자연 현상을 직면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구를 대해온 방식의 한 결과이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스러운 속도는 (기후 변화에 큰 책임이 있는) 부자와 (기후 변화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가난한 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마지막 재앙이라 …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러한 일련의 큰 재앙이 시작될 때에도 본문은 그 재앙들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적이라고 말한다. 이것들은 마지막 재앙들이다 …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한하지 않다. 재앙이 더 이상 세상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닌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15:2 “불이 섞인 유리 바다” [다시 말하지만, ‘바다’는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바다가 처음 언급된 요한계시록 4:6은, 바다라는 장소가 재앙의 초점이 되는 구절들과 마찬가지로, 해설을 위한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요한의 위치에서 바다는 지형학적 경계이지만, 또한 그것은 (이스라엘 이전 시대와 구약의 신화에서 볼 때) 혼돈의 영역이며 로마제국의 지정학적 지배를 위한 고속도로였다.²⁴⁾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추론은 출애굽과의 연관성을 살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을 향할 때 장애물이었던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닷가에 섰을 때 말라버렸다. 그래서 여기서도 짐승의 지배를 벗어난 사람들은 모세의 노래에 동참한다. 곧 일어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

“짐승 … 이기고” [독자에게 계 4:6-7과 6:8의 동물에 관한 해설을 참고하라고 소개하라.]

16:2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 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성경 전체에서 질병은 인간의 죄성의 결과로 여겨진다. 예수님은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이 경험한 건강하지 못한 상태(요 9:3)를 직접 연결하기 원했던 사람들을 논박하셨지만, 질병이 사물의 본질에서 더 깊은 문제의 증상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세상의 모든 경우가 옳거나, 질서정연하거나, 공정하거나 정당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질병은 인간의 조건의 특징이며, 사람

24) Ibid., 78-84.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질병이 사람의 생활방식이나 행동의 직접적 결과일 때가 있다. 여기 ‘짐승’에 맞추어 살았던 사람들을 쳤던 종기가 그런 경우로 보인다. 요한계시록에는 동물들이 자주 등장하는데(계 4:6-7과 6:8 해설 참조) 세상 그대로의 현실적 관점에 따라 동물들의 이미지는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동물은 창조주를 예배하는 사람을 대표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야생 짐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거역을 가리킨다.

16:3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고대 세계에서 피는 종종 오염물질이었다. 이 재앙과 다음 재앙 모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했을 때,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들 가운데 나일 강(그리고 모든 담수)이 ‘피’로 변해 모든 물고기가 죽었던 재앙을 환기시킨다(출 7:14-24). 학자들은 이것이 갑작스러운 유독성 적조와 같은 자연 현상인지 여부를 두고 논쟁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 내러티브는 바로가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원치 않은 결과라고 분명히 밝힌다. 이 이야기에는 사건의 발생과 아울러, 그 기저에 추가적인 윤리적 문제가 있다. 모든 물고기가 죽고 담수가 오염된 결과로, 비타협적이었던 바로에게 동의하지 않은 다수의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생계유지의 수단을 잃고 죽고 말았다.

유사한 문제들이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에 나타난다, 그런데 이 구절은 바다가 피로 변했다고 말하지 않고, 두 가지 오염원인 ‘죽은 자의 피 같이’ 되었다고 말하는 점에 주목해 보라. 이 사실은 바다야말로 지구에서 가장 위협받는 환경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생각하도록 만든다. 여러 오염의 근원(산업의 범람, 중금속, 비료 및 부영양화, 크고 작은 플라스틱)과 고도의 산성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시키는 오염은 온도 변화와 남획과 맞물려, 한때 무한하고 풍부하게 여겨진 생태계를 실질적인 사막으로 바꾸어버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인간 탐욕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16:4 “강과 물 근원에 … 피가 되더라” 이번에는 담수원이 오염된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심지어 뉴질랜드와 같은 ‘청정 지대’라 불리는 국가에서도 인간의 활동은 담수원을 오염시켜, 생태계를 의존하는 인간은 물론 생태계 전체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16:8-9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하나님과 달리, 인간은 해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소비와 탐욕의 결과 중 하나는 해가 인간 (그리고 다른 생물)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매우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일사병으로 인한 사망, 산불로 인한 파괴, 그리고 가뭄 증가는 지구가 직면하는 열스트레스의 결과 중 일부이다.

16:17-21 이 구절들은 지진과 대기권에 발생하는 두 자연 재앙에 관해 말한다. 21세기에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여 종종 지구의 많은 지역을 파괴했다. 2004년 박싱데이(Boxing Day)에 수마트라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이 초래한 쓰나미로 이슬람교인, 힌두교인, 불교인, 그리스도교인, 전통 종교인, 무종교인을 포함하여 25만 명이 사망했다. 2010년 아이티 지진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인명 손실을 초래했고 그 가난한 나라를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자연재해들은 철저히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대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사건들은 사려 깊게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전능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 문제에 대해 쉬운 해답은 없지만,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구는 살아서 변화 중인 행성이며, 우리가 알듯이 사실 지진 활동(지진, 화산, 지구 지각 단층의 움직임)은 대기와 바다와 육지에서 삶에 호의적인 조건을 만들었다. 둘째, 자연재해의 최악의 영향 중 일부는 (관광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해 모래 언덕 혹은 홍수림 같은 바다의 자연적인 장벽을 제거하거나 취약한 지역에 과밀하게 거주하도록 만든, 매우 부당하고 착취적인 세상의 상업 시스템과 같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조건으로부터 초래된다. 셋째, 이 구절들에 묘사된 선례가 없는(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없었던) 지진은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의 실제 사건이 아니라, 로마제국(19절의 바벨론)의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착취 시스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이다. 여기 요한계시록 구절들은 미래 사건들에 대해 예측하지 않는다. 그것이 강조하는 바는 늘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 편에 계시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압제자들과 약탈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16:21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시려고 내리신 재앙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다. 대기에 탄소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인간의 활동은 우박을 동반한 폭풍을 포

함하여 폭풍들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발생하는 환경을 분명히 만들었다. 우박 폭풍은 피해를 주고 치명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자연현상(우박은 1kg이 최고 기록이므로 40kg은 극한을 넘어섬)을 묘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계의 자연계를 사용하셔서 인간의 착취적 활동을 심판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또 하나의 그림을 제시한다.

요한계시록 21장

필자는 이전에 이 세 장에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관해 글을 쓴 바 있다.²⁵⁾ 여기서 번역가와 독자에게 해설이 필요한 몇 가지 대략적인 개요를 제시한다.

21:1 “새” 신약성경의 그리스어는 두 다른 단어 ‘카이노스(καινός)’와 ‘네오스(νέος)’로 새로움을 표현한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카이노스’이다. ‘네오스’가 시간에 있어 완전히 다르고 더 새로운 무언가로 대체되는 것을 가리킨다면, ‘카이노스’는 질적인 갱신과 개선을 가리킨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두 단어의 구분은 신약성경 그리스어에 있어 이것 만큼 분명하지 않다. 마태복음 9:17(그리고 막 2:22; 눅 5:38-39)에 두 단어가 모두 사용된다. 새(‘네오스’) 포도주는 최근에 추수한 포도로 만든 것이다. 그것은 최근에 준비한 동물 가죽으로 만든 새(‘카이노스’) 가죽 부대에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새 포도주가 옛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새 가죽 부대는 팽창이 가능하기에 분명히 옛것보다 용도에 있어 더 적절하다. 골로새서 3:10에서 새(‘네오스’) 사람은 창조주의 형상으로 새로워진다(‘아나카이노스[ἀνακαινός]’). 히브리서 12:24에서 새 언약은 ‘네오스’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카이노스’인데 종종 ‘더 좋은’으로 번역된다(눅 22:20; 고전 11:25; 고후 3:6; 히 8:8; 9:15). (‘네오스’는 신약성경에서 매우 빈번히 ‘젊은’을 뜻한다; 눅 15:12, 13; 22:26; 행 5:6; 딤후 5:1, 2, 11, 14; 딤후 2:4, 6; 뱀전 5:5).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은 하나님에 의한 창조의 갱신을 가리키는 유대 문헌의 전통(사 65장과 많은 중간기 문헌)을 따르는데, 그것은 옛것을 파괴하지 않고 그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계 21:5) 만물을 새롭고 더 낮게 만드시는 중이라고 말씀하신다.

25) Stephen W. Pattemore, “How Green is Your Bible?”, 75-85; Stephen W. Pattemore, “Green Bibles, Justice and Translation”, 217-226.

“하늘과 땅” 이 두 단어는 창세기 1:1의 첫 용례로 거슬러 가서 종종 전체 피조 질서를 가리키는 쌍으로 사용된다(계 5:3, 13; 10:6; 14:7; 20:11). 요한 계시록 전반에 걸쳐, 이 두 영역과 그것들의 구성 요소(해, 달, 별, 땅, 바다, 동물, 식물, 사람) 사이의 긴밀한 관련성은 더 큰 우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주와 상호 작용하심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떠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그리고 그런 관련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활동에 관계되는 지구에 관해 생각할 때도 안내하도록 도와야 한다.

“없어졌고” 여기 그리스어 단어는 단순히 첫 하늘과 땅이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영어 속어 ‘passed away’는 사망을 의미하기에, 이것은 여기서 사람들이 파멸 즉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떠올리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의미는 여기에 의도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요한이 천상의 드라마를 묘사하듯이 연속적인 장면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로 앞 장면(20:11-15)에서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했다. 거기서 “하늘과 땅이 그분의 현존으로부터 피하여 간데없었다.”라고 말한다. 창조 질서 안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상태를 갑자기 부끄러워하며 사라져 버리는 드라마의 등장인물처럼 인격화된다. 이제 이 구절들(21:1-8)에서 사라져 버린 두 연기자(가)는 갱신되어 돌아온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모든 선한 것들을 정화하는, 갱신하는 능력이다. 번역에서 완전한 파괴를 암시하는 ‘없어졌다’는 단어를 피해야 하며, 앞의 20:11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천지의 연속성을 드러낼 수 있다.²⁶⁾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육지에 묶여 살았던 이스라엘인들은 바다를 의심하고 무서워했다. 따라서 (창 1:2로 거슬러 올라가) 구약성경 전체에서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며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장소였다. 그곳은 괴물이 사는 곳이다(창 1:21; 욥 7:12; 시 74:13; 사 27:1; 겔 32:2). 예수님의 맑은 기적은 혼돈과 사망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권능을 증명하며, 특히 우

26) 리드(Duncan Reid)는 창조의 옛 질서와 새 질서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관하여 많은 유익한 통찰력을 가지고 논의했다. 하지만 리드는 두 천사가 인도한 여행들 사이의 병행 구조를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두 환상을 함께 다루며, 계 20장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운명이 공명관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는다. Duncan Reid, “Setting aside the Ladder to Heaven: Revelation 21.1-22.5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arth”, Norman C. Habel, ed.,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234.

리는 주님이 바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에 주목해야 한다(막 4:25-41과 병행 구절들). 더욱이, 로마제국은 지중해와 그 너머의 바다 통행을 지배했으며, 바다는 군사적 침략과 약탈적인 무역을 위한 고속도로와 같았다(계 17-18장을 보라). 이제 이 구절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문화 배경(바다=혼돈)과 정치적 맥락을 떠올려야 한다. 본문의 구조도 이해에 도움이 된다. 바로 앞 장면에서(계 20:11-15), 세 곳은 죽은 자들을 사로잡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그들을 내놓아야 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처럼 인격화된 이 장소들은 바다와 사망과 하데스이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바다의 부재는 죽음을 초래하는 혼돈 상태가 더 이상 어디에도 없어질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로마제국의 지배적인 착취력의 종말을 암시한다.²⁷⁾ 요한계시록 20:13을 언급하고, 구약을 이해하고 요한의 정치적 상황에서 바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면 번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

21:2-3 “하늘에서 내려오니 …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나라 묘사는 확고하게 지구에 위치해 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하나님의 영역)에서 땅(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합적 이미지와 하나님의 거처로 밝혀진다. 따라서 하나님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과 더불어 자신의 거처를 만든다.

생태 위기와 그리스도교의 소망

소망은 그리스도교 환경주의의 본질적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신학적 진술로 간주되지만,²⁸⁾ 번역을 실행하는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파푸아뉴기니와 태국의) 토착 성경 번역가들에 대한 필자의 경험은 그들이 지구의 관점과 자신의 위치로부터 성경을 읽는 데 있어 민감하고 개방적임을 보여준다. 비록 그들의 영성은 대체로 개인적이고 경건하지만, 그들은 공리주의와 서구 복음주의에 널리 해를 끼친 세대주의 신학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다. 이 사실만으로도 여기서 구상된 지침서와 같은 적절한

27) Harry O. Maier, “There’s a New World Coming!”, 177.

28) Richard Bauckham, “Ecological Hope in Crisis”, *John Ray Initiative Briefing Paper* 23 (2012), accessed from <http://www.jri.org.uk/publications/jri-briefing-paper-no-23-ecological-hope-in-crisis-by-profrichard-bauckham>; Stephen W. Pattemore, “Sustained by Hope”, *Stimulus* 20:1 (2013), 42-49.

번역 도구가 생태 위기가 발생한 곳에서 그리스도교적 민감성을 형성하고 지구 친화적 행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강력한 소망을 준다.²⁹⁾

<주제어>(Keywords)

생태 해석학, 생태와 성경, 성경 번역, 번역가를 위한 도움,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5-16장, 요한계시록 21-22장.

ecological hermeneutics, ecology and Bible, Bible translation, helps for translators, Revelation 1, Revelation 15-16, Revelation 21-22.

(투고 일자: 2020년 7월 17일, 심사 일자: 2020년 8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10월 17일)

29) 이 논문은 2018년 11월 18일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SBL 연례 모임의 환경 해석학 분과에서 필자가 발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 Aune, D. E., *Revelation 1-5*, Word Biblical Commentary 52a, Dallas: Word, 1997.
- Bauckham, R., “Ecological Hope in Crisis”, *John Ray Initiative Briefing Paper 23* (2012), accessed from <http://www.jri.org.uk/publications/jri-briefing-paper-no-23-ecological-hope-in-crisis-by-profrichard-bauckham>.
- Carey, G., *Elusive Apocalypse: Reading Authority in the Revelation to John*,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9.
- Goodwin, P., *Translating the English Bible: From Relevance to Deconstruction*, Cambridge: James Clarke, 2013.
- Hemer, C. J., *The Letters to the Seven Churches of Asia in their Local Setting*, JSNT Supplement 11, Sheffield: JSOT Press, 1986.
- Hill, H., “Relevant Study Bibles”, *The Bible Translator* 61:4 (2010), 191-207.
- Hope, E. R.,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Living Things in the Bible*, New York: UBS, 2005.
- Kiel, M. D., *Apocalyptic Ecology: The Book of Revelation, the Earth and the Future*,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7.
- Koops, R., *Each according to Its Kind: Plants and Trees in the Bible*, New York: UBS, 2012.
- Maier, H. O., “Green Millennialism: American Evangelicals, Environmentalism and the Book of Revelation”, D. G. Horrell, et. al., eds., *Ecological Hermeneutics: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London: T&T Clark, 2010, 246-265.
- Maier, H. O., “There’s a New World Coming! Reading the Apocalypse in the Shadow of the Canadian Rockies”, N. C. Habel and V. Balabanski, eds., *The Earth Story in the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166-179.
- Ogden, G., “A Case Study for Study Bibles: The Book of Haggai”, *The Bible Translator* 69:2 (2018), 176-183.
- Pattimore, S. W., “Green Bibles, Justice and Translation”, *The Bible Translator* 61:4 (2010), 217-226.
- Pattimore, S. W., “How Green is Your Bible?”, *The Bible Translator* 58:2 (2007), 75-85.
- Pattimore, S. W., “Relevance Theory, Intertextuality, and the Book of Revelation”, P. Noss, ed., *Current Trends in Scripture Translation*, UBS Bulletin 194/195, Reading: UBS, 2002, 43-60.
- Pattimore, S. W., “Sustained by Hope”, *Stimulus* 20:1 (2013), 42-49.

- Pattemore, S. W., *The People of God in the Apocalypse: Discourse, Structure and Exegesis*, SNTS Monograph Series 12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Prigent, P., *L'Apocalypse de Saint Jean*, 2nd corrected edition, Commentaire du Nouveau Testament 14, Geneva: Labor et Fides, 1988.
- Prigent, P., "L'Hérésie asiatic et l'Église confessante: De l'Apocalypse à Ignace", *Vigiliae Christianae* 31 (1977), 1-22.
- Pritz, R., *The Works of Their Hands: Man-Made Things in the Bible*, New York: UBS, 2009.
- Ramsay, W. M., *The Letters to the Seven Churches of Asia and Their Place in the Plan of the Apocalypse*, London: Hodder & Stoughton, 1904; reprin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 Reid, D., "Setting aside the Ladder to Heaven: Revelation 21.1-22.5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arth", N. C. Habel, ed., *Rea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rt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232-245.
- Richards, S. J. and Gamui, B. G., eds., *Rapid Biological Assessments of the Nakanai Mountains and the Upper Strickland Basin: Surveying the Biodiversity of Papua New Guinea's Sublime Karst Environments*, RAP Bulletin of Biological Assessment 60, Arlington: Conservation International, 2011, accessed from https://www.conservation.org/NewsRoom/Pressreleases/Pages/New_Species_Papua_New_Guinea_Muller_Nakanai.aspx.
- Rossing, B., "Alas for Earth! Lament and Resistance in Revelation 12", N. C. Habel and V. Balabanski, eds., *The Earth Story in the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180-192.

<약자>

- ABS American Bible Society, 미국성서공회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종에 대한 국제무역 협약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 <개정표준역> (1989)
SIL SIL International, 국제하계언어연구소
UBS United Bible Societies,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초록>

성경 번역가를 위한 생태 지침서에 관하여

서구 세계가 자신의 성경 번역 언어들에 대폭 수정하기에는 생태 위기가 매우 급박하다. 하지만 많은 ‘생태 위험 지역’에서 최초의 성경 번역이 진행 중이다. 이전에 필자는 오늘날 생태 위기를 고려하여 ‘철저히 친환경적인’ 소수 언어 성경들에 관해 논증했다. 그런 번역 성경들은 지구를 돌보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교 생활’의 한 부분임을 증명하기 위해, 독자들의 일차 상황과 현 세계에서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본문들을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어휘와 본문병행 자료를 신중하게 선별하는 작업을 포함할 것이다. 본 논문은 요한계시록의 구절들을 검토하여, 번역가가 이런 관점들에서 그 구절들을 이해하도록 돕고, 적절한 번역어들 및 난외주가 도움이 될 만한 위치를 제안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성경 번역을 위한 생태적 지침’을 위해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